총선 D-35… 여야 격전지 대진표 확정

홍사덕 VS 정세균 '정치 1번지' 빅매치

〈서울 종로〉

부산 사상 손수조-문재인 대격돌

4·11 총선이 한 달 가까이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6일까지 공천자를 속속 확정하면서 관심지역의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19대 총선은 18대 대선 구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로 인식돼 주요지역의 총선 승리를 위해 여야 모두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 모두 공천 후유증 속에 '무소속 연대'나 제3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총선판도가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종로**='정치 1번지'로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군 중 한 명인 정세균 의원을 일찌감치 공천하자 새누리당은 이곳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5일에는 6선의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을 전략공천 했다. 홍 의원과 정 의원 모두 자신의 텃밭인 대구와 전북을 떠나서 서울의 중심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

◇**서울 서대문갑**=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달 4일 우상호 전 의원을 공천했고 새누리당은 5일 현역 지역구 의원인 이성헌 의원을 공천자로 발표했다. 둘은 모두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번이 네 번째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16·18대 총선에서는 학교 '선배'인 이 의원이, 17대 총선에서는 '후배'인 우 전 의원이 승리한 바 있다.

◇**부산 사상구**=민주당은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상임고문을 내세웠으며 새누리당은 당내 최연소 후보인 27세의 손수조씨를 공천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될 정도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 고문은 승리해야 본전이지만 자칫 패배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부산 사하갑**=민주당이 친노(친노무현)의 핵심인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자 새누리당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후보로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때 대통령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냈다.

반면 문 위원은 스포츠 스타출신으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한 민주당 문성근 최고위원의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곳에 출마했다.

◇**경남 김해을**=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이 경선을 치러야 하지만 김 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원·거창군수·경남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한 번의 선거 패배도 없었지만 국무총리 지명을 받고도 각종 의혹을 받은 끝에 자진 사퇴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4·27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재기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연설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충북 청주 상당구**='충북 정치 1번지' 답게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내 충북 의원의 좌장격인 홍재형 국회부의장의 공천을 확정하자 새누리당은 정우택 전 충북지사를 후보로 내세웠다. 둘 모두 화려한 정치 이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지 여론조사에서 대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5일(현지시각) 개최한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에서 과거 4차례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탈북자 모녀 한송화(왼쪽에서 두번째), 조진혜(오른쪽)씨가 증인으로 함께 출석, 직접 겪은 고초를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의회에 울려퍼진 탈북자 모녀의 호소

"中 탈북자 강제북송, 美가 막아달라"

"4차례나 송환 당해 항문·자궁까지 수색" 청문회서 고초 증언

"중국 공안으로부터 탈북자를 넘겨받은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개'라고 말하고 수갑과 사슬을 채워 끌고 다니면서 마구 때립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5일(현지시간) 개최한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에는 탈북자 모녀 한송화, 조진혜씨가 증인으로 함께 출석, 직접 겪은 고초를 증언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과거 4차례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이들 모녀는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과 성폭력을 생생하게 전하며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씨는 "북한으로 송환돼 끌려간 수용소에서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한다"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일자리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배급되는 것은 옥수수와 쌀이 섞인 주먹밥이었다"고 소개했다.

한씨는 또 "겨울에는 제대로 된 신발도 없어 천 조각으로 발을 감싸고 눈 위에서 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상에 걸렸지만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면서 "맨손으로 시체를 치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딸 조씨는 "한 여자로서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보위부 요원들의 끔찍한 '만행'을 증언했다.

그는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들이 숨긴 돈을 찾는다면서 여성들의 항문, 자궁 등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수색하기도 한다면서 "한 번은 16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이 때문에 자궁출혈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갖가지 고문으로 정신을 잃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당시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이들 모녀는 이날 증언을 끝내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의 '생존'을 위해 나설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한씨는 "미국이 받아준 각국 난민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130명의 탈북자만 미국으로 망명했다"면서 "제발 두려움에 떨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탈북자들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수전 솔티 북한인권연합 대표는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새 지도자 김정은이 100일 애도기간에 탈북하는 사람은 가족을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내·외신 기자, 시민단체,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최근 한·중 외교이슈로 부상한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새누리 친이계 탈당 도미노 오나

공천탈락 반발 제3당행·신당창당도 고려

김현철 "아버지도 격노" 탈당 선언

새누리당의 4·11총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천이 예상되는 인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기세여서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가 집중적으로 제거되자 최근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일각에서는 친이계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이 전략공천지로 선정되자 신지호 의원은 6일 "공천위가 공천심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모종의 결단을 내리고 정치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무소속 연대보다 더 센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당의 형태를 띠는 무엇인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생각 등 제3당 합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경기 지역 최연소 공천신청자인 박선희(32·여)씨에게 밀려 낙천한 이화수(안산 상록갑) 의원도 '탈락자들이 무소속 연대보다 더 강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생각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친이계 탈락자 일부는 이날 오찬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경남 거제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후 여의도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다"며 향후 거취에 대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새누리당의 비열한 공천 사기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친이명박계)과 무소속 연대, 제3당 입당 그리고 신당 창당 등이 될 수 있다"며 "아버지도 격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여론조사 결과와 공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개 못 한다면 제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평도 포격 도발 주도 북한 김격식 교체 확인

2010년 말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김격식 4군단장이 교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4군단은 황해도와 북방한계선(NLL) 등 북한 서해지역을 담당하는 부대로, 김격식이 작년 말부터 다른 행사장에 자주 모습을 보이면서 교체 여부가 주목돼왔다.

6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변인선 4군단 사령관, 양영철 사단장, 김경수 연대장, 윤영식 여단장이 전날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남한의 한 군부대가 김정일·김정은 부자 사진에 전투구호를 붙인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방송은 4군단 사령관으로 김격식이 아닌 변인선을 소개함으로써 김격식이 교체됐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지난해 말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김격식의 교체설이 나왔을 때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교체배경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연합뉴스

"北 식량지원, 탈북자문제와 연계를"

美의회 인권소위 위원장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대북 식량(영양)지원과 탈북자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어떤 조건이나 연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UN)과 오바마 행정부, 미 의회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적인 강제송환의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은 자신들이 가입한 난민조약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 처형이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잔인한 정책을 즉각 끝내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신기열쇠철물백화점
계림동 E-마트 육교옆
디지털번호키,지문키,보조키,금고,열쇠기계,도어록
문장석,전동공구,일반철물,아파트건조대,선반 취급전문
☎(062)529-6060

솔마을모시송편
두암동 농협3거리 덕산맨션옆
모시송편,기정떡,약밥,찹쌀떡,인절미,떡케익
결혼이바지떡 주문제작 판매전문
☎(062)269-8481

장어랑오리랑
두암동 미라보@입구사거리 365코너맞은편
민물장어소금구이·양념구이,오리로스,오리불고기
오리훈제,장어탕,오리탕 단체예약손님환영
대표 김동춘
☎(062)269-3880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예술의 거리
기념품전문 판매점
대표 서대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매매,무료감정,고급표구,족자판매점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종로검정고시학원
대의동 71-4 전일빌딩뒤 문화전당바로옆
성년한글반, 오전·오후· 야간반
검정고시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원장 이재운
☎(062)226-2227

김장열의청원모밀
동구 황금동 78-9번지
50년 전통의 모밀집
대표 김장열
☎(062)223-6226

다혜지업사
월계동 812-11 산월초교앞
LG인테리어클럽 가맹점 바닥재,벽지,버티칼,몰딩
대표 박정복
☎(062)971-0818

매실오리본가
양산동 1025 양산택지지구 청암@건너
매실오리전문
단체손님환영
☎(062)571-5295

대궐당구장
치평동 1222-11번지 월드빌딩 6층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대표 명재상
☎(010)1540-2289

해피당구장
두암동 미라보@정문앞
성업중, 최신시설 설치완비
최고의 써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대표 신중현
☎(010)4617-4715

빛고을회관
북구청 맞은편 광주은행뒤 말바우시장쪽골목
생고기,살치살,꽃등심,갈비살,삼겹살
가브리살, 꼬리수육,곰탕,생비,불백
단체예약환영
☎(062)266-2003

동아종합철물건재
방림동 533-2 백운고가에서 800M
욕실리모델링전문,APT리모델링,누수탐지전문
대표 이종성
☎(062)654-1105

114광고기업
오치동 1034-7번지
광고대행,간판,네온,시설물설치,건축공사업등
대표 박경호
☎(062)269-0114

와우분식
임동 수창초등학교후문 건너편 대원시장옆
김밥,백반,된장찌개,김치찌개,라면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대표 한영란
☎(062)531-1050

일심공인중개사
산수동 새마을금고옆
원룸,주택,상가,토지 알선매매,각종부동산 투자
대표 김용옥
☎(010)3646-5566

청진동국밥
봉선동 VIP온천사우나 주차장입구 정문앞
청진동국밥,머리국밥,내장국밥,순대국밥,모듬국밥
암뽕순대국밥,새끼보국밥,수육,찹쌀순대
단체예약손님환영
☎(062)651-0059

가마솥추어탕
우산동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옹구 메기탕,추어탕,숙회,튀김 전문
대표 이오규
☎(062)431-1661

수초떡갈비
금동 182-1 전대병원오거리에서 천변쪽
생태탕, 갈치조림, 추어탕전문
대표 최수옥
☎(062)224-0092

용궁아구찜
신창동 1201번지 부영APT옆
꽃게찜,낙지찜,볶음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윤희
☎(062)952-9983

가마솥수연국밥
신창동 1201-3번지
곱창전골, 단체손님환영
대표 허경임
☎(062)961-2993

열린노무법인
쌍암동 694-10 한아름빌딩 302호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대표 신규철
☎(062)971-1528

국제결혼상담소
두암동 두암동천주교정문앞
필리핀 결혼전문
초혼.재혼 상담환영
☎(010)4015-2679

영암마트직영용두점
양산동 첨단자이@입구 농협옆
청과,야채,정육,수산,공산,양곡
산지직송판매
구매전화주문시 신속배달
☎(062)571-4851

정무합기도
신용동 첨단2지국 자이1차상가 2층
유치부,초,중,고,일반부 수시모집
자녀에게 하루한시간식 건강을 선물하십시오.
사랑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가산점 부여
☎(062)571-9696

원명원
금남로2가 구)동구청 1층
중화요리전문
광주에서 처음 출시한 요리
☎(062)232-1422